

켈른 국제가구 박람회를 통해서 본 가구디자인의 경향에 대한 연구

- 2004 - 2006 imm의 리빙가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end of the International Furniture Expo Köln

- Focused on the Living Furniture in 2004-2006 imm -

유연숙* / Yoo, Yeon-Sook

Abstract

Köln IMM (International Möbel Messe Köln) is traditionally one of the advanced Exhibitions with International Expo of Furniture in Milan.

IMM is not only the furniture exhibition but also well known international event that shows novel idea and the newest trend of interior design field. This event displays from the traditional style reaches to the newest trend, and also presents the world various interior design spectrum with the forecast of interior design industry.

This study analyze out the trend of the IMM in year 2004, 2005 and 2006. It analyzed each year's design with form, material, color and general feature. Thus, it suggests demanding and persistent design of modern society.

This char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rniture design from 2004 to 2006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the trend of the furniture design would be process with the relationship of simple design, multi-cultural character, and practical paradigm.

키워드 : 박람회, 가구디자인 트렌드, 색채

Keywords : Expo, Trend of furniture design, Color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실내디자인에 있어 주거 생활 스타일을 형성하는 가장 주된 요소가 가구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것은 가구디자인이 실내디자인의 요소 중 가장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빨리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르듯이, 개인의 생활환경과 취향이 모두 다르므로 사람들은 그들만의 구별되는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 다양한 가구들을 요구하고 있다. 가구디자인의 트렌드 또한 여러 소비 패턴과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점진적인 다양한 변화의 기류를 타고 있다.

켈른 국제 가구 박람회는 트렌드(trend)보다 '트레이드(trade)'라고 할 정도로 가구 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트렌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세계적인 권위의 행사이다.

본 연구는 켈른 국제 가구 박람회에 전시된 가구 디자인의 경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미래 가구디자인의 경향을 몇 가지의

패러다임으로 구분해서 가구 디자인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현대인이 요구하는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서 '가구는 인간의 행위를 담는 그릇'이라는 사용자 행위 측면을 고려한 미래의 가구 디자인 작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에 그 의의를 갖는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06년에 16번째를 맞이한 켈른 국제 가구 박람회의 선구자적 위치는 28만 5천 평방미터에 독일내의 참가업체 463개 해외업체 870개를 포함하여 총 1333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그 중 해외업체의 전시율이 65.3%로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해외업체의 전시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켈른 국제 가구 박람회는 전시관 별로 다른 주제를 가진 가구들을, 예를 들면 'Basic'이라는 주제를 가진 1관은 국제관으로 주로 아시아 제품을, 'Prime'의 2, 3, 4.2관은 모던한 느낌의 가구들을 'Smart'라는 주제하의 7, 8관은 조립식가구들을 선보였다.

* 정회원, 계원조형예술대학 실내건축디자인과 전임강사

그 중 본 연구는 가구 디자인의 트렌드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의자나 테이블 소파 위주의 리빙 가구들을 위주로 해서 쾰른 국제 가구 박람회에 전시된 가구의 경향을 문헌과 인터넷 사이트의 자료, 그리고 방문했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았다.

분석 제품들은 유럽에서의 인지도가 있는 유명업체의 최신경향의 가구를 위주로 해서 각 년도의 디자인 경향을 형태적 특성, 재료적 특성, 색채적 특성으로 구분해서 트렌드를 결정짓는 요소들로 분리해서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진행되게 될 가구디자인의 경향을 몇 가지의 패러다임으로 분류해 보았다.

2. 박람회 일반

2.1. 박람회(Messe)의 개념

박람회란¹⁾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적 간격(매년, 혹은 2년마다)을 두고 거행되는 시장의 성격을 지닌 행사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관련 전문인(Fachbesucher), 즉 구매인 혹은 상업적 구매인을 위하여 상품들이 전시 소개된다. 박람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마지막 날에 한하여 일반인들의 방문이 허용되기도 한다. 박람회는 그 분류 기준의 차이에 따라 지역적, 초지역적 박람회, 국내적, 국제적 박람회, 수출, 수입 박람회, 생산제, 소비재 박람회 그리고 전문, 일반박람회로 구분된다.

2.2. 박람회의 역사

중세 초기, 특히 12, 13세기 이래 유럽의 중요한 교통 요지에서는 교회의 행사일을 계기로 예배 후 시장이 열렸다. 직접적인 물물교환에 이바지한 이러한 형태의 최초의 현물 박람회는 629년 이후의 프랑스 썬드니 지역의 박람회²⁾라고 한다.

박람회가 열렸던 곳은 동시에 화폐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 프랑스 샴페인 지방의 박람회 쇠퇴 이후, 벨기에의 브루주, 겐트지역, 스위스의 제네바 지역에서, 그 이후에는 프랑스의 파리, 리옹 그리고 벨기에의 안트호프에서 박람회가 성행했다. 신성로마제국 당시 독일의 마인 강 유역의 프랑크푸르트는 1240년에, 라이프찌히는 1268년에 오더강 유역의 프랑크푸르트는 1649년에 각기 박람회의 특전을 받았다³⁾.

그 이외의 중요한 박람회 도시로서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 오스트리아의 린츠등이 있다. 1330년 이래 마인강 유역의 프랑크푸르트박람회는 추가적으로 봄의 박람회 개최로 인해 국제

적인 중요성을 띠게 되었고, 18세기에는 라이프찌히 박람회가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현물 박람회의 상황은 19세기 들어서면서까지 계속되었고, 19세기 중에 박람회는 현물박람회로부터 견본 박람회(Muster-Messe)로 바뀌어 갔다. 기계에 의한 동질 상품의 생산과 교통 및 운반수단의 발전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다만 모피와 같이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상품을 직접 본 후에 거래가 형성되는 경우는 예외에 속했다. 독일 라이프찌히의 박람회는 견본 박람회로서도 계속 큰 의미를 가졌고, 이를 본보기로 하여 1904년과 1924년 사이에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 견본 박람회⁴⁾가 생겨났다.

3. 독일 쾰른시의 국제 가구 박람회

3.1. 쾰른시의 국제 가구 박람회 일반

매년 초에 인구 약 100만의 라인강을 끼고 독일 중서부에 위치한 도시 쾰른에서는 국제 가구 박람회가 열린다. 쾰른이 세계적인 가구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쾰른 가구박람회가 열리는 박람회장은 75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 최대의 전문 박람회장이다. 1924년 5월 11일부터 시작된 박람회장은 현재 국제적인 40개의 전시회가 열리며 120개 국가에서 38,000업체가 참가하며 200만 전세계 바이어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곳이다.⁵⁾

독일 연방 공화국의 첫 번째 수상이 된 아데나우어(Adenauer)는 1919년부터 쾰른 안에 박람회를 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제1차 세계 대전이후 독일제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22년 의회에서는 그의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마침내 1924년 봄에 첫 번째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현재 쾰른 박람회장의 전시 홀 면적은 286,000평방미터에 달하는데 이것은 축구 경기장 40개를 합한 것 보다 더 큰 면적이다. 쾰른 박람회장은 위치 면에서도 뚜렷한 장점을 갖는다. 쾰른은 구매력이 높은 유럽시장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 쾰른 주변 600 Km 지역에 1억 5천만의 소비자가 살고 있으며, 유럽 연합 GDP의 50%가 이곳에서 달성되고 있다.

3.2. 쾰른 국제 가구 박람회(imm)

쾰른 국제 가구 박람회는 international möbel messe라고 하며, 약자로 imm 이라고 표기한다. 쾰른 국제 가구 박람회(imm)는 가구산업 분야에서 논란의 여지없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인정받고 있다. 1929년 처음 견본시(Muster - Messe)로 출발하였고, 198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쾰른 국제 가구 박람회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정한

1)Hannelore Selinski / Utea Sperling, Marketinginstrument Messe, Taschenbuch, 1995, p.23

2)Edmund Tandetzki / Albert Kock, 75Jahre Koelner Messe, Messe und Ausstellungsgesellschaft m.b.h., 1999, p.18

3)Ibid, p.20

4)Ibid, p.23

5)Ibid, p.56

상표의 가구 생산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될 수 있으며⁶⁾, 또한 가구와 관련된 인테리어디자인의 트렌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광장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방문객들에게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새로운 가구 뿐 만 아니라, 이미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기존의 품목들도 전시되고 있다.

켈른에서는 이 박람회 기간 동안 부수적 프로그램으로 '통로(Passage)'라는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는 올해로 17회를 맞이하였는데, 켈른 시내 곳곳에 있는 커다란 가구점이나 박물관, 화랑에서 디자인 가구를 전시하여(대부분 디자이너네벌) 박람회를 보충해 준다.

켈른 국제 가구 박람회는 단순한 가구 박람회의 성격을 넘어 실내 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트렌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세계적 권위의 행사이다. 또한 이 행사는 국내의 이벤트 수준을 넘어 전통적 스타일에서 최신 경향 나아가 실내 디자인 산업 전반에 걸친 전망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디자인 스펙트럼을 제시한다. 따라서 켈른 국제 가구 박람회는 디자인에서의 새로운 발상과 다가오는 디자인 트렌드를 앞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4. 켈른 국제 가구 박람회의 디자인 경향

4.1. 2004년 켈른 국제 가구 박람회의 디자인 경향

2004년의 가구 박람회에서는 다양성과 개성이 소비자들의 가장 우선의 요구 사항이다.⁷⁾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등장한다. 이것은 가구들이 어떠한 형태를 취해야 하면 좋을까 하는 물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료와 색채선택과도 관계된다. 따라서 클래식의 명료한 기하학적 형태가 유기적인 형태와 공존하며, 플라스틱에서 자연재까지 재료선택을 위한 범위에서도 다양하게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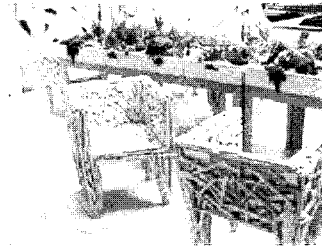
(1) 형태적 특성

유럽 축구대회가 열린 2004년은 축구공을 연상시키는 각지고 둥근 형태들이 특징있는 트렌드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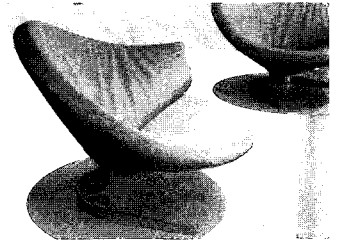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 리빙 가구들의 모서리 반지름들이 크고 부드러워졌는데, 이러한 곡선의 형태가 직선적인 단순한 형태의 제품에서 공존하며, 단순한 단면을 가진 제품의 형태를 마무리한다. 즉 두 가지의 형태 언어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1>의 Ronan & Erwan Bouroullec의 Champana chair는

기하학적인 형태에 나무의 조각들을 모아 전체적으로 각진 형태의 의자이다.

한동안 미니멀한 형태의 가구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2004년에는 딱딱하고 엄격한 기하학적 형태에다 약간의 변화를 주거나 덧붙여 엄격한 기하학형태를 기본으로 변형된 제품들이 등장한다. <그림 2>의 독일의 하일리거(Heiliger)사 컬렉션의 안락의자는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Champana chair / Ronan & Erwan Bouroullec



<그림 2> Rondo / Heili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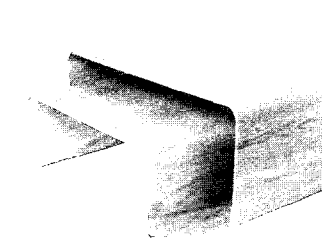
(2) 재료적 특성

내추럴리즘이 재료선택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공하지 않은 가죽, 라탄 등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내추럴리즘을 표현했던 2003년과는 달리 2004년도에 내추럴리즘은 정돈되고 세련된 분위기, 극히 절제된 모던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재료의 다양한 표면 처리와 여러 가지 가공방법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볼 수 있다.

<그림 3>의 어워드(Award)사의 테이블과 같이 나무를 반듯하게 잘라 최소한의 가공만을 해서 심플하게 구성한 것을 전 아이템에서 찾을 수 있고, 여러가지 수종으로 나무의 촉감과 무늬 결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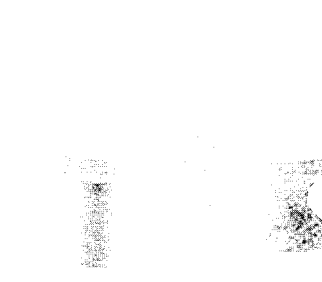
가죽은 나무와 마찬가지로 천연 가죽의 질감보다는 <그림 4>의 호커(Hocker) 디자인과 같이 고르고 매끈하게 가공된 질감을 사용하여 전체 형태나 마감이 심플하고 모던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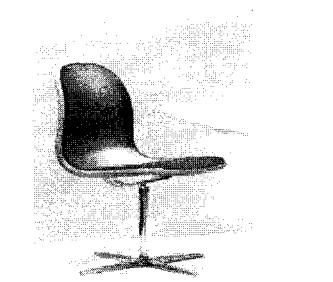
<그림 3> interior innovation / award



<그림 4> Hocker / cinal



<그림 5> Cork Family / Jasper Morrison



<그림 6> A660 / James Irvine

6)한국과 달리 독일은 가구 판매가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 생산자와 관련된 대리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산자의 상품을 고루 갖추어 놓고 있는 가구점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 가구점에서 여러 가구 생산자의 가구를 접할 수 있다. 이는 가구점들이 박람회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로 작용한다. 소비자의 기호에 상응하는 가구의 선택과 전시가 영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러한 올바른 선택이 박람회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7)http://www Red dot. de

<그림 5>의 Cork Family에서는 재료의 여러 가지 가공방법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볼 수 있으며, 나무의 재활용이라는 생태적인 측면에서의 재료선택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림 6>의 A660은 가족을 매끈하게 가공하여 절제된 모던한 이미지와 곡선과 직선의 형태가 공존하고 있는 의자이다.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재료의 다양한 표면 처리에 의한 나무와 가족의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강조한 내추럴리즘은 독특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에서 벗어나, 장기의 공동주거자로서의 리빙 가구에 대한 친숙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자연에 대한 향수를 느끼려고 하는 우리의 감성적 욕구를 반영한 듯 안정화된 느낌을 갖는다.

이전에 스틸은 일반적으로 가구의 다리, 스트럭처(Structure), 프레임에 사용하거나 대부분은 숨기고 일부만 노출시켰던 것에서 벗어나 스틸 소재자체를 디자인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테이블의 경우 스틸을 디자인으로 활용한 다양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나무의 상판에 스틸이 접목되어 내추럴한 감성과 현대적인 이미지가 서로 강조되어 대조적인 이미지를 조화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3) 색채적 특성

부분적으로 2003년의 색채트렌드가 이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고 강렬한 색채트렌드가 겹쳐지거나 완전히 교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7>와 같이 빨강을 기본으로 하는 따뜻한 배색이 2004년의 리빙 가구의 색채팔레트에 지배적이다. 빛나는 색채 뉘앙스완화를 위해 중요하다. 이제 편안한 삶이란 차가운 색이 주는 지적인 선호 대신에 포근한 안락함과 따뜻함을 더 선호한다. 주황색과가 아니라 불투명한 색채 뉘앙스가 거주 분야에서 명상, 긴장 노랑색이 천 가구와 의자에 주된 색상을 이루며 모래와 브라운 톤 및 크림 베이지, 빨강색의 명도와 채도 변화에 의한 오크색이 빨간색과 함께 사용되었다.

회색의 명도변화가 가구디자인에서 점점 두각을 나타내는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루는데, 이것은 80년대의 트렌드가 재등장한 것이다. <그림 8>은 2004년에 '이상적인 주택'을 표현한 보울렉 형제(Ronan & Erwan Bourollec)의 주거공간의 내부 사진인데, 여기에서도 이러한 색채 팔레트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7> 가공된가족의색채팔레트



<그림 8> 2004 IDEA HOUSES / Ronan & Erwan Bourollec

4.2. 2005년 켈른 국제 가구 박람회의 디자인 경향

2005년의 가구박람회는 나날이 다각화되어 가는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리빙 가구도 점차 실용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⁸⁾ 즉, 하나의 가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용도를 취할 수 있는 다기능성과 융통성을 원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대세이다. 예를 들면 고급 직물의 진신마사지기 기능이 겸해진 안락의자, 스트레오 스피커가 내장된 주방용 선반 등은 멀티미디어 용품을 가구에 접목시킨 혁신적인 신상품의 아이디어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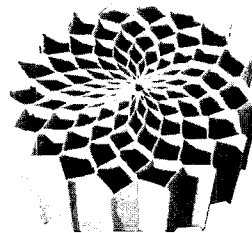
(1) 형태적 특성

의자는 왕좌를 기원으로 하고 있는데, 고상하고 당당하고 엄격한 형태가 단지 앉는다는 기능보다 왕좌와 같은 의자의 이미지를 제공한다. 라운지체어, 디너체어, 또는 회의장의 의자이던간에 새로운 왕좌와 같은 의자는 각 공간에서 특별한 의미를 제공하는데, 각지고 기하학적으로 구성된 그리고 결정체의 건축물이 연상되는 기초적인 형태가 2005년 의자 디자인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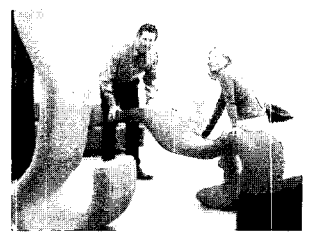
2005년 리빙 가구의 형태적인 모티브는 결정체이다. <그림 9>의 패브릭 소재의 이동 가능한 접이식의자와 같이 결정체로 된 형태는 의자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선호된 연상 모티브이다.

그리고 <그림 10>과 <그림 11>의 의자와 같이 조각물과 같은 형태는 공간에서 조각물과 같이 부피가 큰 형태를 의미한다. 조각물로서의 가구는 기하학적 엄격성과 유기체의 형태적 특성을 함께 갖는다. 이러한 의자의 형태적인 특성은 기능성과 변화가능성을 요구하는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과도 일치하는 견고하면서 변화 가능한 형태로 2005년의 의자디자인의 형태적 특성에 있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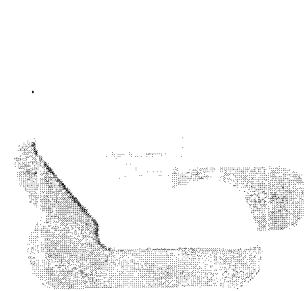
<그림 12>는 하나의 가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용도를 취할 수 있는 다기능성과 융통성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테이블 겸 수납장인 테이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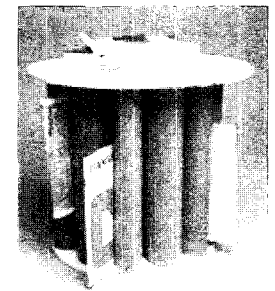
<그림 9> Dahia / Kai Link



<그림 10> BRF



<그림 11> Blob / Leolux



<그림 12> Squeeze / Jeremy Edwards

8)http://www Red dot. de

(2) 재료적 특성

2004년의 재료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과 첨단 신소재 보다는 자연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욕망을 나타낸다. 이 같은 추세는 <그림 13>의 Molteni 의 가구는 최근 가구 디자인 제품들이 전에 없이 다양한 목재 가구를 생산해내고 있음에서 감지 할 수 있다. 참나무나 미치목 등 밝은 색의 전통적인 목가구는 물론이고, 고가에 속하는 희귀 열대목들과 전통적인 고급 마호가니목도 다시금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 다른 재료적 특성은 직물 인테리어 트렌드이다. <그림 14>의 업 홀스터리 소파는 다양한 색상 조합과 형태로의 조합이 가능하며 따라서 공간 활용도 우수하다. 이 같이 고급직물 업 홀스터리, 견고하게 수 제작된 면목과 아마 섬유, 린넨, 그리고 안락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울 소재가 기존에 유행하던 마이크로 섬유소재 같은 인공직물을 대체하는 추세이다.



<그림 13> Look/Molte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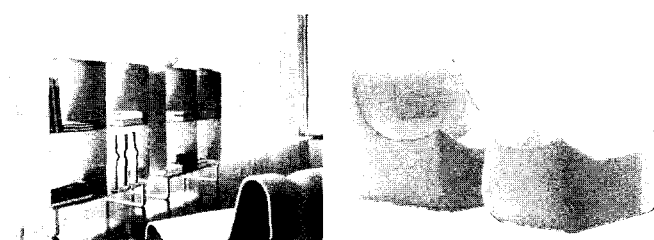
<그림 14> Soft system / TOM DIXON

(3) 색채적 특성

<그림 15><그림 16>과 같이 초록색이 리빙가구의 색채팔레트의 주된 색상이며, 그 이외에는 다양한 색이 지배적이다. 2005년의 초록색은 빛나면서 따뜻한 색조의 누앙스를 갖는다. 예를 들면 신록의 초록색에서부터 노란색이 많이 함유된 레몬 그린색까지 초록은 보색인 빨강색에 대한 강력한 보색의 트렌드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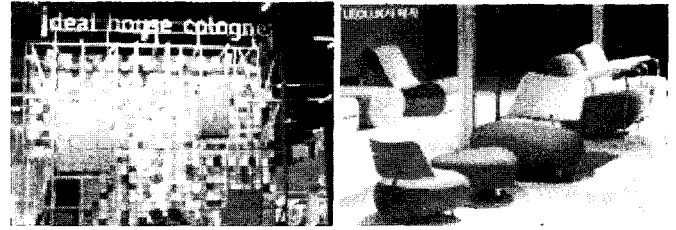
또한 <그림 17>의 IDEA HOUSES의 전체적인 색채 팔레트와 같이 2004년의 지배적이었던 빨강색이 여전히 색상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림 18>와 같이 70년대의 따뜻한 계열의 색상이 자연색조에 영향을 미쳤다. 크림색 톤과 모래색 톤의 색들은 자연성을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배색은 주로 천가구에 사용되었다.



<그림 15> RW400 / Muller

<그림 16> Ligne / Roset



<그림 17> IDEA HOUSES

<그림 18> / Leolux

4.3. 2006년 쾰른 국제 가구 박람회의 디자인 경향

글로벌리즘은 우리 시대를 특징 지우는 하나의 현상이다. 경제, 기술, 그리고 통신에서 세계 곳곳의 네트워크의 영향은 광범위하고, 서로 다른 문화와 이질적인 전통 및 여러 양식의 혼합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삶의 형식과 주거는 거주자의 사적인 영역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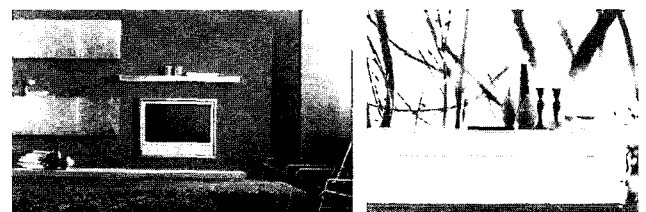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영감을 소재, 자연, 색상, 생활 등에서 찾는다. 몇 년 전부터 세계적인 전시회에서는 동양적인 느낌을 갖는 디자인이 선보였는데,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영감에 대한 것을 문화적인 요소에서 해답을 얻게 된다.

2006년의 가구박람회는 동서양이 조화를 이루고 팝 아트적이면서도 클래식한 빈티지의 올드한 매력과 미래지향적인 소재와의 만남이 주축⁹⁾이 밝힌 2006년도의 가구와 인테리어 전반적인 트렌드이다.

토속적인 아름다움은 각 나라의 특성을 잘 살려내며 그 중에서도 입식생활에 익숙한 서양인들에게 좌식생활 구조의 가구는 색다른 감각으로 그들에게 느껴진다.

<그림 19>의 에스닉한 색상의 리빙 공간의 장은 하이글로시 공법으로 과도한 민속적 느낌을 상쇄시키며, 현대적인 느낌의 가구와 낡은 듯한 스틸을 사용한 수납장이 조화를 이룬다. 의자와 수납장은 좌식구도로 된 것이 특징이며, 낮아진 테이블, 화려한 꽃무늬 패턴 등은 에스닉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동양적인 느낌을 연출한다.

MDF ITALIA의 마케팅 담당자는 <그림 20>의 한쪽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뮐러(Möller)사의 보드 디자인과 같이 동양적인 분위기는 새로운 트렌드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줄 것 이라고 설명한다.



<그림 19> Scacco - colonia

<그림 20> Plain board / Möller design

9)http://www. imm - cologne. de



<그림 21> yado / Kno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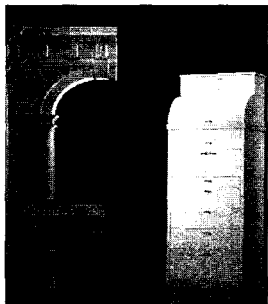
<그림 22> Table bench /Hans de Peismacker

가구분야에서 생산품에 대한 양적인 요구는 포화점에 이르렀다. 유럽에서 감소된 출산률에 의해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디자인에 있어 새롭고 특히 혁신적인 제품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 많은 생산자들이 그들의 생산품에 계속해서 특징을 부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예를 들면 <그림 21>의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형태를 만들고 늘일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다기능적인 가구들이 그 해결책이다. 2005년의 리빙 가구의 전반적인 특징에서 서술했듯이 실제로 이러한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생산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를 자극시켜 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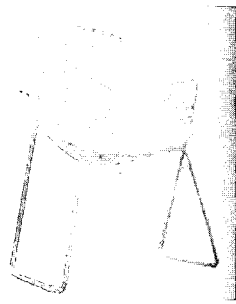
(1) 형태적 특성

현재 패러다임 중의 하나인 다문화성을 입증하듯이 1990년대의 미니멀리즘이 화려함에 의해 해체되었다. 이미 지난해에 카펠리니(Capellini)와 같은 가구분야에서 유명한 선구자들이 새로운 엔틱 가구에서 바로크적인 것을 선보였듯이 전체적인 가구분야에서 바로크적 요소들이 등장했다. 새로운 바로크에 대한 경향은 무엇보다도 장식적인 도안과 장식품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둥근 형태와 화려한 재료에서 나타난다¹⁰⁾.

2005년의 각지고 결정체적인 형태들에 비하여, <그림 23>와 <그림 24>과 같이 2006년은 둥근 바로크적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원형이 여러 가구의 형태언어로 대표될 수 있으며, 2006년의 지배적인 경향은 가구에서 외형적인 엄격함을 제거하는 둥근 모서리이다.



<그림 23> / award



<그림 24> Swala /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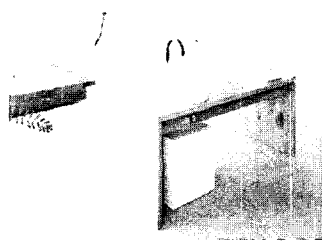
(2) 재료적 특성

2004년과 2005년의 재료적인 특성으로 대표되었던 다양한 수종으로 만들어진 원목제품들이 각 업체별로 선보여질 만큼 대세를 이뤘다. <그림 25>의 토바(TOBA)와 같이 가정용가구에서부터 욕실가구에 이르기까지 최근 가구 디자인제품들이 전에 없이 다양한 목재 가구를 생산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관습과 더불어 환경을 고려하고 건강을 배려하는 이들의 생활방식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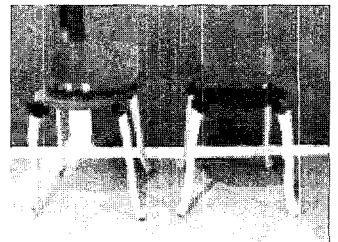
의자의 다리부분은 스틸로 마무리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그림 26>의 arcomeubel과 같이 다리부분에도 나무를 사용하여 견고함까지 겸비한 제품들이 많아져 원목은 친환경적인 것과 더불어 견고함까지 갖춘 실용적인 소재이다. 2006년의 나무 소재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디자인하기 위하여 특별한 마감 없이 제작되었다.

작년 쾰른 전시회에서 하이글로시 제품들이 대거 등장 했는데 이번 해에도 하이글로시한 제품들이 주력제품이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았다. 글로시한 소재의 영향을 받은 친환경적인 소재인 유리는 글로시한 느낌을 연출 할 뿐 아니라 맑은 느낌을 자아내어 내추럴한 나무 소재와 조화를 이룬다.

작년과는 달리 유리소재에 색감을 입혀 사용하는 것보다 유리는 고온에서 제조될 경우 다양한 디자인으로 연출이 가능한데, 이러한 유리소재 자체만의 특성을 살려 <그림 27><그림 28>의 테이블 같이 전형적인 디자인을 거부하고 형태의 자유로움 속에서 제작한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과감한 색상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와의 조화와 더불어 색감을 입히면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만들지 않기 위해 유리 소재 특성을 그대로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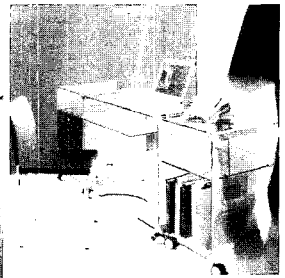
<그림 25> NOAH-e15/TOBA



<그림 26> arcomeubel / Gabriel



<그림 27> 1640 - 0 - 02 / Drarenert



<그림 28> sophia / Gallotti & Rad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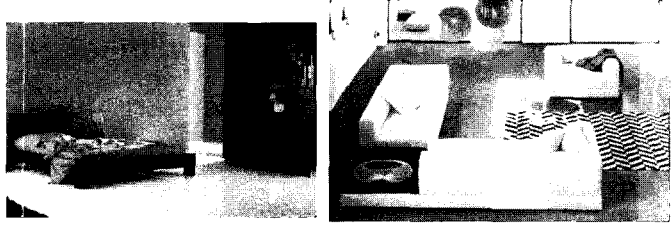
10)http://www Red dot. de

(3) 색채적 특성

부분적으로 2005년의 선호색이 계속 유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더 강렬해진 색채 트렌드가 겹쳐서 나타났다. 2004년의 색채 팔레트에서 주된 위치를 차지했던 빨간색이 <그림 29>와 같이 특히 많이 사용되었으며, 빨간색이 갖는 안락함과 따뜻한 느낌을 나타내는 상징적 작용이 가구분야에서도 선호되었다.

2006년을 상징하는 두 번째 색채계열은 1980년대의 상징이었던 무채색인 흰색과 검정색의 사용이다. <그림 30>과 같이 전반적으로 건조한 듯한 무채색의 가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산뜻한 파스텔 톤으로 공간에 생기를 불어 넣었으며, 과거에 디자인된 제품을 재 디자인한, 기능을 추가시키고 다른 색깔을 주어 다른 모습의 제품으로 생산되었다.

세 번째 색채의 경향은 조화가 이루어진 흰색부터 브라운 색까지 전체적으로 자연색의 스펙트럼을 가진 자연색조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그림 29> Si - 1 Colonia

<그림 30> / Leolux

다음은 앞에서 서술한 2004 - 2006년까지의 가구 박람회에 발표된 가구디자인의 경향을 크게 생태학, 단순성, 다문화성, 실용성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4가지의 키워드가 매 년도마다 리빙 가구의 특성으로 공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각 년도의 일반적인 특성에 중점을 두어 표에서 각 년도 별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표 1> 2004 - 2006년의 가구 디자인의 경향

가구디자인의 경향	2004년	2005년	2006년
생태학	재료적인 특성 ->정돈되고 가공된 내추리리즘	재료적인 특성 ->다양한 종류의 목재 가구 ->인공적물을 대체한 자연 직물의 사용 색채적인 특성 ->자연성을 전달하는 배색	재료적인 특성 ->실용성과 건강을 배려한 원목제품의 가구 ->유리소재 자체를 그대로 사용
단순성	형태적 특성은 다양화 ->기하학적형태와 유기적 형태 공존 ->기하학적형태를 기본으로 변형	형태적 특성 ->기하학적 엄격성과 유기체의 형태적 특성 혼합	재료적 특성 ->바로크의 디자인적인 특성을 가진 동근 형태와 화려한 재료
다문화성		재료적인 특성 ->전통적인 목가구와 고급 마호가니	일반적인 특성 ->글로벌리즘 여러 양식의 혼합 ->동 서양의 조화 팝아트적이면서도 클래식한빈티지의 조화
실용성	재료적 특성은 ->표면처리와 가공 방법에서 다양화	형태적 특성 ->다기능성과 변화 가능성	형태적 특성 ->형태변화가 가능한 다기능성 ->다양한 조합의 가구

5. 결론

독일의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하이젠베르크(Heisenberg)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통해 자연자체가 불확정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¹⁾. 자연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자체가 다양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지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Frame잡지 편집장인 Robert Thiemann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전시장을 가보면 전시참가업체들이 마치 사전 답합이라도 한 듯 그해의 트렌드를 '심플(Simple)과 미니멀(Minimal)'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로 규정지을 수 있는 트렌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트렌드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즉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식의 사조는 사라지고 다양성이 가구 박람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던 기존가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기존의 것을 보다 세련화시키고 보충화시키고 그 기능을 극대화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표 1>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의 가구디자인 경향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생태학적 내지 환경보호적, 단순성, 다문화적 패러다임 그리고 실용성 안에서 진행 될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생태학적, 환경보호적 특성. 가구디자인 및 생산 공정에 있어서 생태학적이고 환경보호적 측면의 고려는 이제 당연한 것이다, 가구의 생태학적 고려는 가구생산에 사용된 재료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생활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본 가구의 '능력'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 결과 질적, 기능적, 그리고 미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삶의 단계, 용도 그리고 공간상황을 소화할 수 있는 가구가 인기를 끄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유행이 바뀌거나, 이사를 하거나, 가족관계가 바뀔 때마다 이미 가지고 있던 가구를 없애고, 어떠한 새로운 가구가 자신들의 용도에 그리고 개인적인 특성에 가장 적합한가를 전처럼 새롭게 고려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아가 단명의 가구는 이제 비도덕적인 것으로 통한다. 즉, 가구는 이제 다시 아름답고, 목적에 적합하고, 친근감이 가는 장기의 공동 주거자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둘째, 가구의 단순성. 단순성은 무엇보다도 가구의 형태에서 나타난다. 쾰른 가구 박람회에 전시된 가구의 형태는 크게 로맨틱한 형태와 단순, 명료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선명하지만 각이 지거나 어떤 일정한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따르지 않았다. 미적이지만 인위적이지 않았고 단순하지만 초라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단순성이 부각되었는데 이것이 세련됨이나 편안함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단순성이 가구형태의 비 다양화를 의

11) Interzum award, Intelligent material & design, Red dot, 2005, p.23

미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오히려 다양화 현상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점점 강해지는 개인주의 때문에 현대의 인간은 점점 더 개인주의적 주거공간의 형성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개인주의를 가구 생산자들은 가구형태의 다양화에서 뿐만 아니라, 가구 표면 처리 및 예를 들면 소파의 경우 천과 가죽의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통해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에 의해 개개의 주거공간은 각 개인의 개인주의의 하나의 실현의 장이 되며, 개인과 주거공간은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의 단일체를 형성한다.

셋째, 다문화성. 국제성과 다문화성의 영향이 가구 박람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문화와 각종 양식(Style)의 만남은 가구에서 예를 들면 강하고 생동적인 분위기와 자연적 재료의 사용을 조장한다. 그 결과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새로운 트렌드로 제시하는 업체도 많아졌다.

넷째, 실용성. 쾰른 가구 박람회에서 본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실용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선 가구의 기능성과 변화가능성이 결합된다. 이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많은 가벼운 그러나 견고한, 변화 가능한 가구들이 선보였다. 이러한 가구들은 새롭게 생기는 가치 욕구를 지적인 방법으로 만족시켜 준다는 목적을 추구한다. 예를 들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소파, 필요에 의해 확장이나 접을 수 있으며 바퀴 달린 보조 서랍장과 함께 책상으로도 사용 가능한 탁자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쾰른 국제가구 박람회에서 분석된 가구 디자인에 대한 몇 가지 패러다임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형태의 단순화는 대부분의 경우 자연적인 재료의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 자연적인 재료의 선택은 또한 환경보호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한 가구 디자이너들은 단순히 환경보호적이고 자연적인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머물지 않고, 한편으로는 기능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태와 질을 고려하여 다양한 실체를 지닌 가구를 선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얼마간 계속될 전망이다.

참고문헌

1. Edmund Tandetzki / Albert Kock, 75Jahre Koelner Messe, Messe und Ausstellungsgesellschaft m.b.h., 1999
2. Hannelore Selinski / Utea Sperling, Marketinginstrument Messe, Taschenbuch, 1995
3. Interzum award, Intelligent material & design, Red dot, 2005
4. 월간가구저널, 2006 쾰른 국제 가구 박람회, 2006, 2
5. 월간가구저널, 2005 쾰른 국제 가구 박람회, 2005, 2
6. 월간가구저널, 2004 쾰른 국제 가구 박람회, 2004, 2
7. interiors, 쾰른 국제 가구 박람회 2006, 3
8. interiors, 쾰른 국제 가구 박람회 2005, 3
9. interiors, 쾰른 국제 가구 박람회 2004, 3
10. <http://www.imm-cologne.de>
<http://www.Red-dot.de>
<http://www.BAULINKS.de>

<접수 : 2006. 10. 31>